“한명이라도 佛緣을…그것이 불교중흥”

수미산원정대 7월 2~3일 법주사서 첫 순례

불자 · 비불자 등 50여명 참여
템플스테이 첫 경험이 대다수
비불자 호감 · 불자 신심 더해
자승 스님 “불교 인연 계기로”

보은 법주사=노덕현 기자

“난생 처음으로 사찰에 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평소 불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인 초청으로 수미산원정대에 가입하고 이렇게 사찰에 와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해보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 수미산원정대 1기 안창섭 씨

“모태신앙이 기독교라 아직도 교회에 새벽마다 예배하러 가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방황하던 저에게 스님들이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불교가 또 다른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묵은 것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불자가 아닌 많은 분들이 불교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미산원정대 1기 안수진 씨

불교중흥을 위한 신도배가운동 ‘수미산원정대’가 7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천년고찰인 보은 법주사에서 첫 번째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수미산원정대는 상월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총무원장, 봉은사 회주)의 발원에 따라 결성된 단체로 2월 27일 발대식 후 현재 봉은사에서 이웃종교인, 비종교인 등 불교를 접하지 못했던 이들과 불자지만 아직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 사상 등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자비순례 회향과 함께 탈종교화 등으로 인한 불교교세 쇠락을 염려하며 ‘불교와 인연맺기’를 주창, 본인부터 3년간 108명의 비불자를 불자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미산원정대의 성지순례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수미산원정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봉은사 총무국장 탄원 스님과 50여 명의 1기 수미산원정대 대원들이 참석했다.

2일 오후 5시 법주사에 도착한 수미산원정대는 저녁예불과, 사찰예절 안내, 탄원 스님 지도 하에 참선 습의 후 ‘상월선원 90일간의 기록’ 다큐 시청으로 첫 날을 보냈고, 직장인으로 구성된 2차팀이 합류한 3일에는 새벽 4시부터 도량석과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108배와 사찰탐방, 반별모임 등 템플스테이 일정을 소화하고 회향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부주지 각운 스님 등 법주사 대중 스님들이 사찰탐방 안내를 담당하며 정성을 다했다.



제1기 수미산원정대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천년고찰인 보은 법주사에서 첫 성지순례를 개최했다.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로부터 이들은 사찰 문화와 수행에 대해 배우고 채험했다.

제1기 수미산원정대에는 절반 이상이 비종교인이거나 이웃종교인이다. 사찰순례서 비불자인 대원들은 첫 템플스테이에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민세진 씨는 “남편이 개신교 모태신앙을 갖고 있어 교회도 나가고 있는데, 불교사상과 많은 부분이 맞는다고 느끼고 있다. 사찰로 찾아오는 이들을 한 분이라도 제대로 안아줬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연호 씨도 “봉은사와 가까운 곳에 법률사무소가 있지만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미션스쿨을 나와 대학은 이른바 공자대학인 성균관대를 나왔고, 가톨릭계인 서강대에서 CEO대학원 과정도 밟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수미산원정대에 참여하게 됐는데, 템플스테이는 말만 들었지 처음인데 너무너무 좋다. 새벽에 도량석을 하며 나부터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미산원정대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첫째는 템플스테이로 사찰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하며, 두 번째는 봉은사 무문템플스테이로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아홉 스님이 보여준 수행정신을 체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다음 기수를 꼭 데리고 와야 한다. 졸업 후 기수 모임이 계속 유지되며 동문회 형식의 기수별 네트워크도 구성될 예정이다.

아직 불교에 대해 모르는 이들의 열정에 불자인 수미산원정대 대원들도 원력을 더했다. 불자 정치인인 주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황순일 · 김용현 · 신영섭 교수, 김동건 前불교포럼 상임대표 등 불교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들에게 “지난 2019년 겨울 상월선원에서의 정진은 사부대중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불자들이 신심을 더욱 갖고, 비불자들도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상월결사를 통해 보이고자 했다. 511km를 걸은 자비순례 또한 사부대중이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였다. 한국불교는 승속이, 사부대중이 함께해야 한다. 신심없이 원력없이 불교가 일어날 순 없다”며 “수미산원정대는 단순한 교리공부가 아닌 가라앉는 불교를 되살리는 포교의 장으로 앞으로 불교와 전혀 인연 없는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는 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국선수단 도쿄올림픽 선전 기원합니다”

KCRP, 조계종 포교원 등 진천 선수촌 방문 잇달아

대한민국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종교 · 불교계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원행) 공동회장단은 7월 5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만나 선전을 당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공동회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공동회장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신지용 선수촌장, 정성숙 부촌장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동행해 선수단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KCRP 회장단은 7월 5일 진천 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원행 스님은 “올림픽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선수 및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치르는 가운데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포교원 스님들과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7월 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방문은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마련한 자리로 포교연구실장 용주 스님, 포교국장 혜교 스님, 신도국장 혜안 스님,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 및 주윤식 중앙신도회 회장,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등이 동행했다.

격려방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최소 인원만 참여한 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신치용 선수촌장, 정성숙 부촌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과 차담하며 인사를 나눈 후, 선수촌 곳곳의 훈련장 및 웨이트장을 라운딩하며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방문에서 선수들의 만남은 거리를 두고 이뤄졌다.

이어 스님들과 불자들은 선수촌 법당에서 도쿄올림픽 출전 231명의 명단과 합장주, 〈불교성전〉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과 무사귀환을 축원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우리 선수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움을 뛰어 넘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모든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청소년 사경공모전에 몰린 관심

파라미타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작 발표

공모작 접수 사상 최대 기록
특별대상 윤도훈, 조윤서, 김민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가 주최하는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특별대상(종정상)에 윤도훈(동대부고3), 조윤서(동대부여중2), 김민(은석초5) 학생 작품이 선정됐다. 또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수민(창원신월고2) 학생, 특별상은 김미소(금산중3)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예하와 부처님오신날봉축위, 문화체육관광부, 포교원이 후원하는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하고, 또 수행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경공모전에는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했다. 코로나로 청소년 활동에 제한이 가해진 상황에서 사경에 인기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접수 인원은 2020년 대비 약 3000명 늘어난 2만 3000여 명으로 파라미타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사상 최다 인원이다. 파라미타는 150여 단체작품 중 자체 심사를 통해 678여 점을 추천받아 6월 10일 자체심사와, 6월 14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번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별대상을 수상한 윤도훈 학생은 종정예하 법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를 사경하고, 탐욕과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했다. 조윤서 학생과 김민 학생은 〈법구경〉 내용 중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구절을 사경했다.

김경호 사경장은 “올해는 과거 그 어느 해보다 출품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여겨졌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